

北韓의 석유산업

지질 학적으로 한반도내에서 유전 또는 가스田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北韓은 '57년경 함경도 아오지지역에서 소련과 루마니아의 기술과 장비지원을 받아 지질탐사와 유전조사를 위한 시굴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유전이 발견될 징후는 나오지 않았다.

北韓은 원유의 자국생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中國이 개발한 유전과 지질학적 공통점을 지닌 평안도의 서해안 일대에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北韓의 해저유전을 탐사하기 위한 대외활동은 다음과 같다.

'78년초 황해와 中國에 접한 발해만의 대륙붕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中國측의 기술지원을 받아 이 지역의 탐사추진계획을 실행한 적이 있고 제1단계는 사전조치로서 내륙지역에 대한 석유등 각종 자원의 탐사작업이 행해졌다.

또 '80년대초에 '韓·中 과학기술원조위원회 제19차회의'가 개최되어 공사중인 봉화화학공장(북한의 2개 정유공장중의 하나) 제2기 공사를 조기 완공하기 위한 기술방안과 해저유전탐사를 하기 위한 장비 및 기술지원에 대해 中國측과 협의하고 중국측에 이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87년 6월 2일 北京에서 '상호 과학기술 원조위원회 제7차회의'를 하고 자원탐사 및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문제를 논의하였고 '87년부터 추

진되고 있는 제3차 7개년계획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설비 및 자원개발·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소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北韓은 '76년초 해저유전채굴방법의 연구를 진척하기 위하여 소련의 카스피해 대륙붕 유전에 전문기술대표단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했다. 그리고 자국의 유전탐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저 지질탐사를 위한 항공촬영 기술에 관한 문헌도입을 하였다. 게다가 600~3,000m급 석유시굴 기계도 4대 도입하였다.

또 서방측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접촉이 있었다.英國의 석유탐사 전문기술 컨설팅 회사인 다니엘社와의 사이에 연안 석유탐사 의정서를 교환하기 위한 접촉이 있었다. 日本과는 '77년 Jack-up 식 석유굴삭기 도입 교섭이 있었고 "太古産業社"(북한계의 재일상사)를 경유한 Discoverer-Ⅲ형 석유시굴선 도입교섭도 있었다.

한편 석유산업에서는 60년대 중반까지 특히 자주적인 건설추진 실적이 없었으나, '67년초 소련 기술단이 설계도를 작성, 설비의 건설을 시작하는 등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계획 기간내에 완공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6개년 계획('71년~'76년)으로 이월되었다.

그리고 소련과는 '71~'75년 사이에 "韓·蘇 경

제 및 과학기술원조협정"을 '70년에 체결하는 것과 함께 우선적으로 정유공장의 전용 발전소로 하여 옹기 화력발전소(정유공장용)을 건설했다. '7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 재정부장 김곤룡은 평안남도 안주지구에 석유화학 종합기지로서 청년화학연합 기업을 건설함과 아울러 나프타 열분해 공장 및 에틸렌 공장 등 신규 화학공장의 건설 계획을 보고했다.

'73년 9월 옹기 정유공장은 승리화학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제능력 연산 100만톤분의 제1기 건설공사를 완공, 가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에서 이종옥 총리는 이 공장의 제2기 공사를 완공하고, 정제능력 연산 2백만톤(7만 B/D)을 달성했다.

또 소련은北韓에 대해 연간 200만톤의 원유공급을 보증하고 소련의 극동 나호트카 항구에서 옹기항까지 유조선으로 원유공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北韓은 서시베리아의 초메니우전에서 나호트카 항구까지 소련측에 의한 6,500km의 파이프라인이 건설된다면 나호트카에서 옹기 정유공장까지 소련원유의 파이프라인 건설계획도 검토할 것임을 표명했다.

北韓은 또한 '75년 후반부터 中國의 지원하에 연산 200만톤 정제능력을 지닌 백마 정유공장의 건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정유공장이 처리할 중국산 원유의 수송을 위해 中國 안동의 大慶유전에서 平北백마리까지 "韓·中 우호 송유관"을 '76년 1월 완공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2관으로 이루어졌는데 1관은 원유공급용, 또 1관은 나프타등 석유화학 관련 제품공급용으로 보여지며 연간 최대 송유가능량은 4백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中國에서 직접 원유를 수입하는 형태가 된 것은 '77년 3월 이후이고 그 이전은 대련항구에서 남포항까지 유조선으로 수송했다.

그후 제2차 7개년 계획의 초년도인 '78년 中國 공산당 주석 화국붕이北韓을 방문했을 때, 종전 2백만톤의 생산능력인 백마정유공장을 250만톤(7만 B/D)로 확장할 것과 함께 명칭도 봉화화학 공장으로 바꿨다.

'75년 후반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78년 9월에 연산 1백만톤 능력의 제1기 공사가 완공, 가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어서 연산 150만톤 능력의 제2기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정유공장의 공정상의 특징을 들자면 중국산 원유를 처리하기 위해(이 원유는 점도가 높은 중질유분이 많은 대신, 저유황이기 때문에 탈황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메리트가 있지만) 휘발유, 나프타 등의 경질유의 생산비율을 높이기 위해 상압증류탑에서 나온 잔사 중질유분을 분해하는 Fluid Catalytic Cracking 등의 2차 설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소련산 경질원유의 처리공장과 비교하면 시설비가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자료에 의하면北韓은 소련에서 약 1억8천만 루블('86년)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中國으로부터는 '87년 기준 3억2천만圓 정도의 원유, 석유제품 및 관련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 석유화학 공장으로는 서구에서 설비를 도입하여 건설한 청년화학연합기업사(평남 안주)가 있지만, 이 공장은 승리화학과 봉화화학에서 나프타공급을 받아 요소비료, 폴리에틸렌, 에틸렌 글리콜, 아닐린섬유(폴리에틸렌 섬유), 펄프, 종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北韓은 석유부문에서도 궁지에 처한 모양이다. 즉 北京의 신뢰할 만한 관계자에 따르면 中國정부는北韓에 대해 석유공급량을 사실상 삭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한다.

이미 소련은北韓에 대해 현금결제가 아니면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고했고 이후 북한이 신뢰했던 中國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北韓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中國과北韓사이에는 5년간의 석유공급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中國측은 지금까지 시장 가격의 약 50% 정도로 연간 150만톤의 석유를北韓측에 양도하여 왔다. 지불은 바터제로, 북한은 무연탄, 시멘트 등을 中國측에 보냈지만 석유대금 정도에 미치지 못해 中國에 대한 부채가 늘어나 거의 지불 불능상태에 있다.

中國정부는 이 때문에 기간 만료된 이 협정의 개정시北韓에 대한 中國 자산의 석유수급이 꺾박한 상황을 이유로 석유공급을量力이 아닌 대금환산으로 하여 사실상의 공급삭감 방침을 내어 놓았다.

中國 정부의 태도는 완강하여 北韓도 그 선까지 협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련의 통고에 이은 이번 中國의 통고로 北韓은 아주 어려운 석유수급 체제로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소련의 北韓에 대한 원유공급도 매년 어렵게 될 것이다. 北韓의 '88년 원유 수입량은 316.4만톤이 었지만, '89년은 1.8% 감소된 260만톤으로 감소되었다. 그 주요 원인은 소련에서의 수입이 삭감되었

기 때문이며 '90년 9월 北韓을 방문한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원유공급에 대한 의화결제를 요구했다. 게다가 소련은 종래 30% 할인하여 왔던 원유공급 가격을 국제가격에 연동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다시 지금까지 바터무역을 硬貨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종래의 우호적인 경제협력관계에서 일변하여 소원한 상태로 변하는 중이다. ♣

(일본 Cosmo 석유의 조사에 의한 것임. '92. 1)

北韓의 원유 수입 소비

(단위 : 천톤)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수 입	115	1,250	1,600	1,800	2,000	2,100	2,200	2,400	2,600	2,700
소 비	115	1,250	1,600	1,800	2,000	2,100	2,200	2,400	2,600	2,700

(생산, 수출은 없음)

알아봅시다

GM, 7년연속 최대기업에

【뉴욕 = AP 聯合】제너럴 모터스社가 7년연속 미국 최대기업으로 선정됐다.

포춘지가 1일 선정 발표한 미국내 5백대 기업 순위에서 따르면 GM사가 작년 44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1천2백38억달러의 매출을 기록, 1위를 유지했다.

포춘지가 선정한 5백개 기업중 1백3개 업체가 작년 미국을 휩쓴 경기침체로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0위권안에 든 업체 중에는 2위를 기록한 엑손社만이 유일하게 흑자를 올렸으며 3위는 26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포드社가, 4위는 28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IBM이 각각 차지했다.

포춘지가 이날 발표한 기업 순위는 총매출을 기준으로 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0위까지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전년도 순위, 91년 매출액·단위는 달러).

- ▲1위 = GM(1, 1천2백37억8천만)
- ▲2위 = 엑손(2, 1천32억4천2백만)
- ▲3위 = 포드(3, 8백89억6천3백만)
- ▲4위 = IBM(4, 6백47억9천2백만)
- ▲5위 = GE(6, 6백2억3천6백원)

- ▲6위 = 모빌(5, 5백69억1천만)
- ▲7위 = 필립 모리스(7, 4백81억9백만)
- ▲8위 = 듀폰(9, 3백80억3천1백만)
- ▲9위 = 텍사코(8, 3백75억5천1백만)
- ▲10위 = 세브론(10, 3백67억9천5백만)

분석결산

기업은 결산에 있어서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성실한 보고를 해야하지만 업적이 악화될 경우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예가 있다. 이를 분석결산이라 한다. 분석결산은 부정경리이며 그릇된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체크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성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디스클로저(투자자보호 목적으로 재무내용을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의 확충과 감사제도의 충실화가 요청된다. 분석결산은 가공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부채의 과소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한편 업적이 좋을 때 이익의 과소계상을 피하는 경우를 역분석이라 하며 수익이나 자산의 과소계상, 비용이나 부채의 과대계상이 획책된다. 이 또한 부정경리이다.